

종합·해설

민주 광주·전남 경선구도 확정...예상 격전지는?

북감·을, 광산 갑, 나주화순, 영함장담

<영광·함평·장성·담양>

서구 을, 고흥·보성도 치열한 접전 예고

5일 민주통합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경선 대진표가 짜졌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공천=당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를없기 때문에 경선 판세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에 따라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경선결과가 속단하기 이르지만, 선거인단 참여(동원) 여부와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 간의 연대 여부가 경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서구 을은 김영진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상갑 변호사가 공천장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지난 2010년 서구청장 선거와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 전 비서관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민변 출신인 이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협상단 대표 등을 맡는 등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현역 김영진 의원의 조직과 선거인단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경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는다. 현역의원 과 정치신인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역예산 확보 등의 공을 내세우고 있고, 짧은 층을 중심으로 인지도 높여온 김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폭넓은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북구 갑도 강기정 의원과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결을 펼친다. 지역 조직력이 탄탄한 강기정 의원과 북구에서 오랫동안 정치와 시민사회 운동을 해오며 바닥을 다져온 이형석 전 비서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경진 변호사의 선택도 주목된다. 북구 을 선거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3명이 경선을 벌인다.

김재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최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최경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을은 김재균 의원도 모집한 선거인단 표심과 지방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경선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과 전갑길(55) 전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인다. 김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이, 전 전 의원은 막강한 조직력이 평가를 받고 있어 광주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여수갑에서는 3선의 김성곤 의원과 정치 신인인 김점우 전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인물론을 내세우는 김 의원에 대해 참신함을 앞세운 김 후보가 컷오프 탈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은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독주를 김점우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와 이형수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전 비서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나주·화순은 박선원 전 청와대 전략비서관과 배기운 전 의원이 맞붙었다. 인지도 면에서는 배 전 의원이, 참신성 면에서는 박 전 비서관이 앞선다는 평가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낙연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대결 구도에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끼어들어 3자 경선이 됐다. 기존 두 후보의 치열한 선두 경쟁 속에 이개호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령에 전 전남도위원과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대결한다. 인지도 면에서는 황 전 군수가 앞서지만 여성후보 가산점 20%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안은 재선을 노리는 이윤석 의원과 3선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후보가 대결하는 곳이다. 지역구를 잘 다져왔다고 자부하는 이 의원과 3선을 조직력을 앞세운 두 후보의 대결이 어서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해남·진도·완도는 현역인 김영록 의원과 MBC 보도국장 출신의 박광은 후보가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다. 조직 등 객관적 조건 측면에서는 완도 출신의 김 의원이 앞서고 있으나 가장 인구가 많은 해남 출신 후보가 박 후보로 자연스럽게 단일화돼 지역 대결이 될 경우,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흥·보성은 40대인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과 박상천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승남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맞붙는 지역구다. 장 후보는 인물론을 바탕으로 대세를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후보는 '1:1 구도'가 된 만큼 박상천 의원의 조직이 집결될 것으로 보고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하기 위해 조만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야권연대지역 2곳 유력

한명숙-이정희 대표 오늘 만나 입장 정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 야권 통합협상이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선 최소 2곳 이상의 지역구가 야권연대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선 20곳의 의석 중 2곳 이상이 야권연대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작은 양보라도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6일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통합 협상을 위한 대표 회의를 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남 후보 단일화 및 경선 지역 등에 대한 당내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민주당의 '4+1'(수도권 4곳과 호남 1곳)과 진보당의 '10+10'(수도권 10곳·비수도권 10곳) 등의 안을 놓고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양당 대표 회동이 추진되면서 야권연대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양당은 전국적으로 11~13곳에 대해선 경선 없이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되, 경남을 포함한 30곳에선 양당이 후보를 낸 뒤 통합경선을 치르는 방안의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해당지역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잠재울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한 후보는 "4·11 총선 공천심사까지 끝마친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를 야권연대지역으로 선정한다면 말이나 되느냐"라며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 후보자에게 '야권연대협상이 이뤄지면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 기초의원들이 이개호 후보 지지 선언

담양 기초의원들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새롭게 확정된 영광·함평·장성·담양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개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적 논리로 무시당한 담양의 자존심을 지켜줄 국회의원으로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 정부와 정치권의 반농 정책을 뒤바꾸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할 최적인자"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담양은 이번 총선에서 논란 끝에 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편입됐다.

한편, 함평·영광·장성·담양 선거구에는 영광 출신 이낙연 의원과 함평 출신 이석형 전 함평군수, 담양 출신 이개호 예비후보가 출마해 경선에서 지역간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경선 일정은

10~11일 모바일투표, 12일 현장투표

민주통합당이 5일 수도권과 영남지역 등 26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민주당 경선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갈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 준비기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경선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천확정자를 발표한 만큼 이틀간의 재심기간을 거쳐 8일 경선 공고를 한 뒤 9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빠르면 10~11일에는 모바일투표 경선, 12일에는 현장투표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위탁 가능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후보 등록을 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은 6~7일 모바일투표, 8일 현장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결과는 별도의 가중치 없이 1대1로 합산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시장·무안군수 후보 경선 재심 기각

민주통합당은 4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4·11 순천시장·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안군수 후보 경선은 각각 3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8~9일 이틀 동안 선거인단 모바일투표, 10일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기초보선 4곳 후보 100% 여론조사로 선출

민주통합 전남도당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은 4·11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여수시 지방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100% 시민 여론조사로 선출하기로 했다. 5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전남 공직후보자추진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당은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100% 전화 시민여론조사(RDD·임의결기) 방식에 의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기로 했다"며 "금주 중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사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전남 공직후보자추진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24주 (96시간)

Table with 3 columns: 과목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Rows include 3급반, 2급반, 특급반 with dates and times.

▶수업시간 : 오전반 : 09:30 ~ 13:00 / 오후반 : 14:00 ~ 17:30

▶연수요일은 희망인원에 따라 변경가능

수료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 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시범)자격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 농협 175375-56-065137(이중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문의상담 : ☎ 062)366-9666, 367-8666

▶우대사항

- 방과후 학교 현직 한자지도강사
• 퇴직교원 및 현직 한문교사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광관리협회부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ongmak' (보말) in Budeongsan (부동산) area. Features 'Chaeteok' (채테크) and 'Free Special' (무료특강). Includes contact info for 'Suncheon' (순천강의) and 'Gwangju' (광주강의) clas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농성동) 'Leaders' (리더스하이) apartment complex. Includes floor plan, price, and contact info: 010-3625-6984.